



## 냉소주의

성인경

저는 대학생 청년들을 평생 가르치고 전도한 사람인데, 최근에는 젊은이들 중에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청년들이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겠다.”며 ‘종교적인 커밍아웃(religious coming out)’을 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교회가 다 그런 거지 뭐, 목사들도 다 그런 사람들 아냐?” “진화론보다 못한 비 과학적인 기독교를 더 이상 안 믿겠어.” “결과 속이 다른 기독교인들이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그만 두겠어.”라고 말하고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한 청년은 “기독교가 썩을 대로 썩어 이제는 개독교가 되었는데 내가 왜 그런 교회를 다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기독교를 비방했고 교회를 비웃었고 기독교인들을 능멸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젊음의 치기(稚氣)에 그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저의 가슴이 솟처럼 타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 중에 한 명은 제가 10여 년 전에 전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냉소주의 현상들

라브리 공동체를 찾아온 한 청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는 이원론적인 영성에서 헤매다가 대학생 시절에는 ‘신의 음성’을 듣는 등 신비주의를 지나서 이제 청년이 되어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는 데는 불과 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정신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에서 분리하는 이원론적 영성에 사로잡혀서 바른 영성을 배우지 못하다가, 대학생이 되어 겨우 찾은 교회에서는 방언, 신유, 예언, 환상 등 각종 신비주의와 은사주의 운동에 빠져서 기독교 진리를 배울 기회를 놓쳤고, 청년이 되어서는 아예 교회 다니는 것마저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청년은 누구보다 정직한 구도자였고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과학자 도킨스(Richard Dawkins)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다, The God Delusion”라고 말하며, “신에 대한 부정은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가치인 진정한 사랑을 찾는 일이다. 신이 없어도 인간은 충분히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빈정거리며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려져 있던 인간에 대한 믿음을 탐구해야 한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무신론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솔로몬은 앞의 누구보다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경험했고, 허무가 깊다 못해 냉소주의를 경험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다음의 사건을 관찰하고는 극심한 허무주의자 내지 냉소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흥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오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오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전도서 9:13-18)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옛날에 어느 작은 마을에 이웃나라의 악한 왕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 와서 성을 에워싸고는 싸울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꿈쩍 없이 온 마을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워낙 악당으로 소문난 놈이 쳐들어 왔기 때문에 이 동네 동장과 군인들은 다 오줌을 싸고 벌벌 뜨느라 아무도 싸울 생각을 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2) 다행히 그 성에 매우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총, 칼도 없이 성문을 열고 나가서 그 악한 왕과 몇 마디를 나누었는데, 그 악한 왕이 전쟁도 해보지 않고 그만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자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지혜는 십만 군사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강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3) 그러나 솔로몬의 허무주의는 여기에서 시작하는데, 적군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는 언제 “그런 지혜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었느냐?”는 듯이 마을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도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배은망덕(背恩忘德)’이라도 이걸 해도 해도 너무나 배신입니다. 그런 꼴을 보고 그 지혜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의 좌절과 허무감의 출발점인 듯합니다.

4) 더욱 더 통탄을 금치 못할 사실은, 성을 살린 그 지혜자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망각되고 무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부자였다면 그 사람 앞에 줄을 서서 “감사하다.”며 잔치라고 열어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돈이 없거나, 아무리 똑똑해도 힘이 없으면 괘시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좌절감과 허무감을 넘어, ‘세상이 더럽게도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구나.’라는 탄식을 자아내게 만든 근본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5) 그 동네에 지혜는 없지만 부자이고 마음씨가 고약한 놈이 하나 있었는데 (전도서에서는 그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동네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은 들으면서도 지혜자가 한 일은 잊어버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를 위협으로부터 건져냈으나 무시당하고, 고약하고 어리석은 놈은,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지혜가 없었지만 온 동네사람들의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냉소주의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냉소주의의 원인들

냉소주의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는 기존의 모든 권위뿐만 아니라 사랑하던 이웃 사람들이나 그동안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진리라고 믿었던 것에도 서슴없이 냉소적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신드롬에 대한 해법을 논하기 전에 그 원인부터 찾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냉소주의자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냉소주의의 사회적 친구들. 냉소주의의 친구들은 우리가 매우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회적인 원인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유행하는 정신이라고 일컫는 ‘관용 (tolerance)’에 반하는 태도, 즉 종교다원주의자들과의 대화를 무조건 거부하고 있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냉소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주장하는 태도에 실망을 함으로서 냉소주의자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기독교의 윤리적인 실수와 구조악, 혹은 일반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IVF 간사님은 젊은 세대들이 고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심각하게 보지 않거나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가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진실성의 결여(lack of sincereness)’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청년들이 엉뚱한데 신경 쓰느라 진리 탐구에 대한 지적 탐구심과 호기심이 현격하게 떨어진데서 ‘호기심 상실(loss of curiosity)’이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무식함 혹은 무지(無知, ignorance)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식한 것을 감추려다 보니 냉소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분석도 있습니다.

(2) 냉소주의의 심리학적 동료들. 냉소주의의 동료들은 심리학적인 원인들입니다. 동료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파트너가 된다는 말입니다. 딕 카이즈(Dick Keyes)는 냉소주의의 동기를 심리학적으로 잘 분석해 주었습니다.<sup>1)</sup>

1) 냉소주의의 첫째 동기는 ‘자기 방어(self-protection)’이다. 냉소주의는 어떤 것에 낙심과 실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려는 자신을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방어 기제이다. 비웃거나 비꼬거나 빈정대거나 코웃음을 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모종의 낙심으로부터 지키려는 방어 시스템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낙심될 만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방어로써의 냉소주의는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2) 냉소주의의 둘째 동기는 ‘도덕적 무관심(moral apathy)’이다.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당당히 싸우지 못하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슬쩍 눈을 감아버리기에 가장 좋은 것은 비웃음이요 냉소적인 태도입니다. 적어도 냉소주의자들은 세상이 더럽다는 것을 꿰뚫어보는 사람이며, 그 실상을 훤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냉소주의자들은 비웃기는 하지만 개혁을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3) 냉소주의의 셋째 동기는 ‘엘리트주의(elitism)’ 혹은 ‘자기 우월감(pride)’이다. 천상천하에 자기가 최고라는 교만한 마음, 즉 자기가 가장 많이 배우고 똑똑한 엘리트라는 허위의식이 세상에 아무리

1) Dick Keyes, Seeing Through Cynicism, IVP

좋은 것이라도 시시하게 보고 비웃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냉소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 난채 하는 지식만 아니라 그들의 얼굴, 몸매, 머리, 재물, 권세도 포함된다. 그 잘난 우월감 때문입니다.

(3) 냉소주의의 철학적 애인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도서 1:2)라는 한 마디 말을 두고 철학계, 심리학계, 신학계 등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헛되다”고 하는 말인 ‘헤벨’이란 단어가 연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sup>2)</sup> 최근 구약학의 동향은 이 단어가 두 가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헛되다’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부조리’, 혹은 ‘불합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sup>3)</sup>

1) “헤벨”은 ‘헛되다’는 말입니다. 전통적인 번역에 의하면, “헤벨”은 ‘헛되다(vanity)’는 의미입니다. 만약 “헤벨”을 ‘헛되다’라고 번역할 경우에는, 이 말은 ‘헛되고(vain)’, ‘덧없으며(fleeting)’, ‘무익하고(futile)’, ‘무의미한(meaningless)’, ‘목적이 없는(purposeless)’, ‘가치가 없는(worthless)’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헤벨”을 “헛되다.”로 번역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 소리는 술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Like the crackling of thorns under the pot, so is the laughter of fools. This too is meaningless.”(전도서 7:4-6) 여기서의 ‘헛되도다.’는 말도 ‘덧없고’,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매우 재미있는 관찰인데, 지혜로운 자들은 큰 소리 한 번 “깰 깰” 내며 웃어보지도 못하고 이불 밑에서 히죽거리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마솥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처럼 ‘깰 깰’ 대며 웃는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려오는 것을 볼 때,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sup>4)</sup>

2) “헤벨”은 ‘부조리하다(absurdity)’라는 말입니다. 최근의 경향을 따라, “헤벨”을 ‘부조리한’이라고 번역할 경우에는 ‘부조리하다(absurd)’, ‘불합리한(the manifestly irrational)’ 혹은 ‘의미 없는 것(meaningless)’ 등의 의미로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헤벨”을 “부조리한”이라고 번역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부조리하여) 바람을 잡는 것’이라.”(전도서 4:4) 여기서의 ‘헛되어’라는 말은 ‘불합리하다.’ 혹은 ‘부조리하다’는 말이 더 적당하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관찰인데,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성공하려고 죽으라고 고생하는 것도

2) “헤벨”이란 말은 히브리어인데, 본래 “숨쉬다.”고 할 때의 ‘숨(breath)’, ‘수증기(vapor)’, ‘안개(mist)’, ‘연기(smoke)’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한다. 성경에서는 이 말을 ‘헛되다(vanity)’라고 하는 주로 번역했다. 이 말은 구약 전체에서는 59회가 나오고, 전도서에서만 38회가 쓰였다. 그러나 ‘헤벨’이란 말이 전도서에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의 핵심 단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전도서의 처음 구절인 1:1과 거의 마지막 구절인 12:8에서 똑 같이 쓰인 구절도 “하벨 하발림(vanity of vanities)” 이라는 말인데, “헛되고 헛되다.”라고 번역된 말이다.

3) 현창학, 구약지혜서연구,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164-166

4) ‘헤벨’이 ‘헛되다(vanity)’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14; 2:1,11,19(a); 4:16(a); 5:7, 10; 6:4,11,12; 7:6, 15(a); 9:9. “헤벨”을 ‘허무하다’고 풀 경우에는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런 예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 1) 수고의 헛됨 2:19-21/ 수고자의 죽음과 지혜자의 죽음이 일반이다. 2) 명성의 헛됨 4:16/ 한 때는 유명한 사람도 곧 잊혀 진다. 3) 부의 헛됨 5:10/ 돈과 부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 4) 부질없는 일의 헛됨 7:6/ 시간 낭비는 슬픈 종말을 몰고 온다.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잘난체 하고 싶거나 친구들에 대한 시기심(猜忌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세상은 요지경이고 웃기는 짬뽕’이 아닙니까? 이처럼 전도서는 “헤벨”이란 말을 통해 세상의 불의와 불법 그리고 죄악을 한탄하며, 절망과 회의,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sup>5)</sup>

### 냉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부조리한 이런 세상을 언제까지 비웃거나 욕하거나 냉소를 보내거나 조소하고만 하고 있겠습니까? 해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독한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는 별 다른 해법이 없습니다. 만약 해법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기보다 더 강한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전도서 9:18)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1)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지혜로운 해법은 다름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은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고, 부조리하다.”며 불평하거나 비웃으며 냉소주의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러지 말고 부조리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전도서 1:15에서는 구부러진 것은 구부러진 대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네 힘으로는) 구부러진 것을 펴 수가 없고, 없는 것을 셀 수가 없지 않는가!”(전도서 1:15, 공동번역) 이 말씀은 “너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펴거나 고치거나, 세거나,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처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거나 냉소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를 넘어서는 비결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 하나이다 하시니.”(누가복음 22:42)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현실과 타협하거나 허무주의에 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데,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깨달은 비결이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응하는 것이며,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창학은 이것을 “수긍할 수 없음을 넘어선 수긍”, “긍정할 수 없음을 넘어선 긍정”,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매우 흥미 있는 분석이라 생각합니다.<sup>6)</sup>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라고 미국 칼빈대학교의

5) ‘헤벨’이 ‘부조리한’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17,19,21,23,26; 3:19; 4:4,7,16; 6:2,9; 8:10,14; 11:8,10. 이 밖에도 “헤벨”을 “헛되다.” 보다는 ‘부조리한’ 혹은 ‘불합리한’ 것으로 번역해야 할 대표적인 구절이 전도서 8:10-14이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불합리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부조리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6) 현창학, 구약 지혜서 연구, 177. 현창학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이다.

존 스택(John Stek) 교수가 지적했습니다.<sup>7)</sup>

질문: 당신은 현재의 자기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가? (현재의 자기 능력, 얼굴, 몸매, 실력, 업무, 건강, 부부관계, 자식, 동료, 재력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겠는가?)  
Accept the human state as it has been shaped by God's appointments.

(2) 네가 다 고치려고 하지 말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고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종종 빠지는 실수는 “이 세상이 다 썩었으니 내가 다 뒤 집어 엮어 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고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은 바로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전도서 7:13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Consider what God has done: Who can straighten what he has made crooked?)”라는 말씀처럼, “내가 당장 다 고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굽었다(crooked).”고 하는 것은 모든 ‘구부러진 것’을 말하는데, 인생의 고통이나 역경, 또는 인간이 동의하기 힘든 환경이나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굽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도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을 촉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고 굽히셨다면 누가 감히 그것을 펼 수 있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누가 감히 그것을 고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의 역설인데, ‘우리는 펼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사람이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전도서 3:14)

여기에 “하나님이 행 하신다(everything God does).”는 특이한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the God can do everything)’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로, 전도서의 다른 곳에서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the righteous and the wise and what they do are in God's hands),”(전도서 9:1, 전도서 7:24)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의인이나 지혜자들의 행위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면 “네 같이 어리석은 놈이 될 고치겠느냐? 경거망동하거나 까불지 말라.”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번 물어 봅시다. “의인이나 지혜자도 못 고치는데, 네가 펼 하겠느냐?” “네가 고칠 힘이 없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풀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 칼빈대학교의 존 스택(John Stek) 교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들들 볶고 있지는 않는가?(Don't vex yourself with

7) 현창학, 구약 지혜서연구, 183, 본래 6가지인데 성인경이 5가지로 줄이고, 괄호( ) 안의 질문도 추가로 만든 것이다.

unrealistic goals).”<sup>8)</sup>

여러분은 지금 너무 거창하고 허황된 목표를 세우고 매일 같이 자신을 북돋움처럼 들들 북고 있는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세치 혀로 지구 전체를 다 핥으려는 어리석은 짓이 아닐까요? “네가 다  
고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전도서가 주는 무기보다 더 힘 있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의  
깨달은 정치철학입니다.

(3) 작은 것을 즐겨워하라. 냉소주의자들만 아니라 요즘 같이 답답한 시절에는 누구나 “한 탕”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큰 것을 한 탕 하면 다 해결될 것 같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한 탕에 부조리하  
고 헛된 세상을 뒤집어엎어 버리거나, 한번 만에 모든 환경을 싹 바꾸어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  
나 이들의 실수는 크게 한 탕을 할 날을 기다리다가 작은 것을 다 놓치거나 인생의 하루하루의 즐  
거움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작은 것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은 헛되고 부조리한 것이라고 그렇게도 비웃고 한탄하고 불평하다가, 갑자기 “사람  
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전도서 2:24),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전도서 8:15, 표준새번역)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 하고 있는데, 왜 갑  
자기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를 알 만한 사람은 이미 인생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겠지만, 사는 것이 너무 고  
달프고 힘들고 지치고 한탄스러울 때는 현재 누릴 수 있는 조그마한 것만이라도 감사하며 즐겨워하  
는 것이야말로 ‘단 하나 밖에 없는 살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부조리하다는 것을 절실  
하게 느끼는 순간, 즉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 절박한 순간을 즐기는  
길 밖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의 비밀입니  
다.<sup>9)</sup>

전도서 9:7-10이 가장 신나는 구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  
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  
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  
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  
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될 바로 그때, “전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바로 그

8) 현창학, 구약 지혜서연구, 171, 172. 현창학은 솔로몬이 심각한 좌절과 비웃음과 평가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의 해법,  
즉 “받아들이라.”고 하는 ‘상담(counsel)’의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도표를 그렸다.

성격과 목표	핵심 개념	메세지
회의주의(skepticism)	헛됨(vanity)	“헛되다.”
불평(complaint)	부조리함(absurdity)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상담(counsel)	순응(resignation)	“받아들이라.”

9) 폭스(M. Fox)라는 사람은 매우 흥미로운 관찰을 했는데, “전도자는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 자신의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이 즐거움을 누리라는 권면을 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가끔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호걸들도 병들어 늙거나, 죽음을 앞  
두고 있을 때는 꽃 한 송이가 그렇게도 예뻐 보이고,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는 것도 그렇게 신기하다고 한다. 그것이 바  
로 고통의 극단에서 찾는 작은 기쁨이다.(cf. 전도서 3:12-13; 3:22; 5:18-20; 8:15)

순간에, 즉 고통이 극에 다다랐다고 생각될 때는 누구나 화려한 탈출이나 깜짝 놀랄 만한 큰 사건이나 한 탕을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큰 이벤트나 화려한 한 건을 꿈꾸지 말고, 현재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기뻐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이런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비상 탈출구'입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해법을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실망이 되겠지만 '작은 것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지독한 허무주의자들과 냉소주의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비상 탈출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무기보다 더 무서운 지혜"의 해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 1) "비록 쌀밥에 고기국은 없더라도 오늘 밥상에 올라온 음식을 맛있게 먹어라."
- 2) "비록 현웃이라도 좋으니 장롱 밑바닥에서 꺼내어 깨끗하게 빨아 입고 멋을 한 번 내보아라."
- 3) "비록 머리카락이 몇 개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남아 있는 동안에 최고 비싼 기름을 사서 발라 보아라."
- 4) "비록 네 아내와 네 남편이 쭈글쭈글 늙어가고 병도 많지만 네 아직 살아 있을 동안에 서로 즐기라."
- 5) "화끈한 한 건을 노리며 뜬 구름을 잡으려 하지 말고 오늘 작은 일상을 즐겨라." 이것이 지혜이다.

(4) 본분에 충실 하라. "지혜의 왕", 솔로몬이 깨달은 마지막 냉소주의의 해법, 즉 "무기보다 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충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13-14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본분이니라(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NIV)"이라는 말은 "이것이 전부니라.(for this is whole of man, ASV)"이라는 말이기도 하합니다. 즉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본분이며,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 본분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크게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 1) "청년들의 본분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전도서 12:1): 네가 잘 나서 네가 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자기 잘 난 맛에 하늘이 높은 줄 모르는 청년들에게 "너는 피조물이라."는 지혜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 2) "어른들의 본분은 흠은 흠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전도서 12:7): 나이든 어른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비록 몸은 늙고 병들다가 흠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원히 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인가를 잠시도 잊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 3) "모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전도서 12:13): 냉소주의에 빠진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즐겁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본분" 혹은 "내 삶의 전부"라고 가슴 깊이 잘 받아들이는지 한 번 테스트를 해 볼까요? 앞에서 살펴본 기본적인 본분 3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전

도서의 대표적인 12 가지 계명, 즉 하나님의 지혜를 뽑아 보았는데 자기 점검 리스트입니다.

- 하나님이 없는 공부는 절망과 허무로 끝난다. 1:7,8
- 하나님이 없는 유명세는 결국 슬픔을 가져온다. 1:16-18
- 하나님이 없는 쾌락은 실망만 불러온다. 2:1,2
- 하나님이 없는 노동은 혐오와 분열을 불러일으킨다. 2:17
- 하나님이 없는 철학은 공허감을 불러온다. 3:1-9
- 하나님이 없는 영생은 불만족을 가져온다. 3:11
-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울한 마음과 좌절감을 부추긴다. 4:2-3
-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공포심을 가져다 줄 뿐이다. 5:7
- 하나님이 없는 부와 재산은 재난을 불러온다. 5:12
-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좌절과 부조리로 끝난다. 6:12
-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부분적이며 제한적이다. 8:17
-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지독한 절망으로 치닫게 된다. 11:1-8

### 마치는 말씀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지독한 허무주의와 냉소주의 속에서 온갖 고민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내성적 질문과 싸우거나 조소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힌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자기 영혼을 죽이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해결책을 찾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당장 해결할 수 있거나 도망치거나 포기해야 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빨을 좀 깨물고 기다려야 할 문제입니까? 만약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빨을 좀 깨물고 기다려야 할 문제라면, 당장 해결하려는 성급한 마음을 버리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최고의 지혜요 해법들입니다. “이 세상이 헛되고 부조리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생과 환경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싸움을 포기하라, 물러서라,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가르치고자 하는 인생의 지혜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재 부딪히고 있는 현실과 매번마다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오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싸우고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순응하며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화려한 이벤트 대신에 하루 하루 일상적인 작은 즐거움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들뜨지 않은 고요한 심정으로 오늘 내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일까?”

바라기는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받아들이기” 비법을 시시하게 여기고는 사사건건 굽을 것을 펴려고 하거나,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즐거움은 다 잃어버리고 화려한 이벤트만을 기다리거나, 오늘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